



영암

2018 / No.132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 하루를 마치는 기도

마르틴 루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밤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심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도 저의 모든 행동과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죄와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제가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함으로

악한 원수가 저를 조금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켜주심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행한 곳에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 밤도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제가 제 몸과 영혼,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까닭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가 저와 함께함으로

악한 원수가 저를 조금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2	성시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 하루를 마치는 기도 · 마르틴 루터
04	말씀의 샘물	‘나라를 위한 기도’(삼상12:22~23) · 유상진 담임목사
06	추모사	사랑하는 故김영표 목사님... · 이철웅 목사
08	여름성경학교/수련회	행복했던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와서... · 최상은(초등1부)
09		마지막 여름성경학교 · 신지욱(초등2부)
10		하나님과의 첫 번째 “대화” · 이건희(중등부)
11		기대한 것 보다 더 재미있었던 여름 수련회 · 정다희(고등부)
12		같지만 다른 수련회 · 오채훈(청년부)
14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유치부 여름성경학교
16	해외선교	캄보디아 선교 · 신가은(중등부)
17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 이준섭(중등부)
18		캄보디아 선교훈련을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
20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 우쿤다! DBAA 학교!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라 · 고은(청년부)
22	해피파티	해피파티
24	신임교역자	안녕하세요 정치인입니다 · 정치인 전도사
25	아기학교	15기 아기학교를 마치며 · 서경희 권사
26	근속교사 간증문	중,고등부 교사로서 20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 박형우 안수집사
28	새생명잔치	하나님, 나의 아버지~!! · 김도연 성도
30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 신영옥 권사
31	예닮동산	천국 소망 품기 · 백선실 집사
32	CIP수련회	제1회 기도하는 아이들 캠프를 다녀와서 · 홍정화 집사
34		CIP수련회에서의 값진 시간 · 윤정희 집사
35	찬송가 해설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 김혜림 집사
36	자립화대상교회 방문수기	상반기 영남권 자립화 대상교회 방문 · 안영희 집사
38	영화칼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까? -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 속의 빛’ - · 강진구 안수집사(영화평론가)
40	교육관 리모델링	영암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 박종성 안수집사(은광교회)
44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46	영암소식	



‘나라를 위한 기도’(삼상12:22~23)



유상진 담임목사

지난 6월 마지막 주간, 국제사랑재단의 인솔하에 서울북교회 목사회 수련회로 연해주를 다녀왔습니다. 연해주는 러시아의 북동항으로 유명한 극동함대가 있는 곳이자, 우리의 역사로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서린 곳입니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수 많은 애국지사들이 연해주로 망명,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됩니다.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있는 한인이주 140년 기념으로 세워진 고려인 문화센터를 방문하면서 그 곳에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최재형은 함경도 노비 출신으로 아홉 살의 나이에 연해주로 이민한 최초의 고려인 중 한 사람으로 러시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나이 서른이 되기 전 연해주 굴지의 거부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과 능력과 기회를 고려인 동포의 권익을 돕는 일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교육의 힘을 알았던 그는 한인 후손을 가르칠 학교 32곳을 세웠으며, 항일 의병의 의식주를 지원했고, 안중근을 만나 항일운동을 도왔습니다. 1907년 연해주로 건너온 안중근은 ‘집집마다 최재형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고 할만큼 당시 최재형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최재형은 1908년 이범윤 이위중 안중근 등과 함께 해외 최대 독립운동 단체인 동의회를 조직하였으며, 상해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했고, 1909년 10월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척살 거사를 후원했던 장본인입니다. 체포된 안중근은 일제가 법정에서 배후를 물었을 때 끝내 최재형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운동에 앞장선 그는 1920년 일본군에 체포되어 63세의 나이에 총살형으로 순국합니다. 고려인 문화센터 근처에 있는 최재형의 고택을 잠시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낡은 건물을 한창 보수하는 중이었습니다. 조국이 무엇이기에 노비 출신으로 어린 시절 떠났던 고국을 일평생 목숨마져 아끼지 않고 사랑하였는지...그의 큰 아들도 독립운동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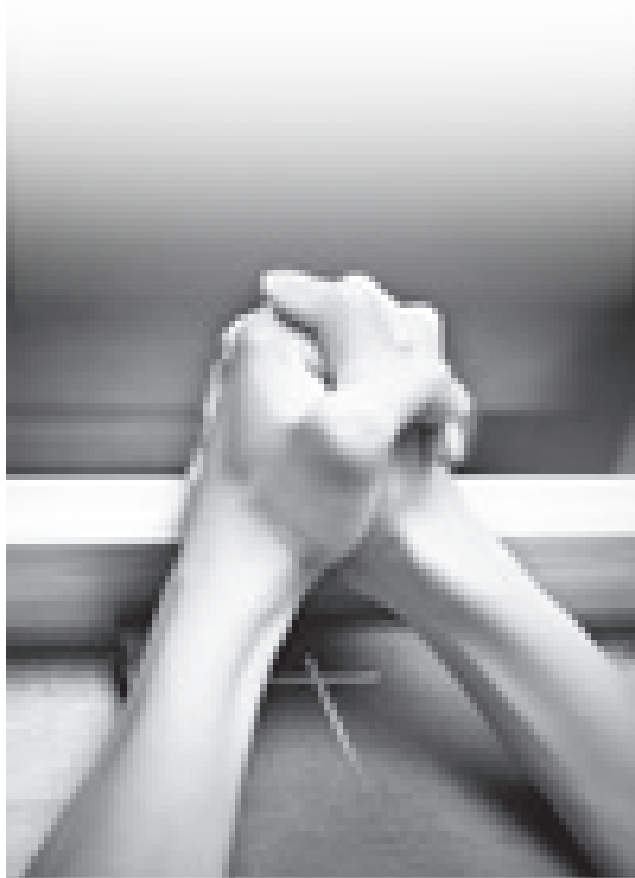
북한 어린이들에게 빵을 공급하는 국제사랑재단 동북아지부에서 숙식을 하며 선교사님을 통해 조국을 떠난 고려인들의 애환과 아픔을 듣고 함께 기도드리며, 다시금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우연히 주어진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빛진 자임을, 그래서 나라 사랑은 우리 모두가 진 빛을 갚는 길임을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올해 맞이하는 광복기념주일 그리고 함께 부른 애국가에 제 가슴속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과연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삼상12:22~23) **Y**



사랑하는 故김영표 목사님..



이철웅 목사

사랑하는 김영표 목사님...

사랑하는 김영표 목사님...

생각해보면 생전에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김영표 목사님’하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어색하였을 것인데, 지금은 이다지도 간절한 그리움이 실려서 당신을 이렇게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을 보니 목사님은 정말 멀리 떠나가셨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저기 저 사진을 영정이라 받아들이는 것이 주저됩니다. 지난 사흘 내내 보고 또 보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목사님을 차마 저 사진 너머로 보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과사를 주관하시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일에도 그분의 선한 뜻이 깃들어 있음을 믿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제 마음의 이 진실을 살피셨을 주님이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지탱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부터 먼저 고백할 따름입니다.

돌이켜보며 목사님과 저의 동행이 참으로 오래되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사로운 인연을 밝히는 것이 덕스럽지 못하다 여겼기에 어색하게 그것을 감추어둔 사이, 이 오랜 인연의 소중함도 잠시 잊었나 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믿음의 여정으로 여기며 살고 있을진대, 주님은 저에게 귀한 목사님과 인연을 선물로 주시어 저로 하여금 목사님의 그 믿음의 여정을 지켜보고 또 이렇게 추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주님과 사귄 것이 무엇인지 채 깨닫기 전, 교회를 놀이터처럼 여기며 어울렸던 그 어울림

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을 부르신 주님의 첫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삶의 길을 판단하며 결정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주님은 그 즉시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열 명이 채 모이지 않는 모교회 청년부 부흥을 열망하는 노래를 간절한 소원처럼 가슴으로 불렀던 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큰 부흥의 위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주님은 그러한 성취를 통해 또 다른 성취를 이루도록 목사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구하였으나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그 쓰라린 상처의 기억, 인간의 연약함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해할 수 있는지를 묵도해야 했던 그 메마름 속에

‘나는 나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러한 교회를 보기를 원한다.’

바로 그 음성을 통해 주님은 목사님과 저를 이 자리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르심이 목사님의 삶과 심령에 드리운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환우들을 심방하고 돌보며 ‘형, 저는 목사가 위로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좋아요.’ 주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들며 ‘형, 저는 설교 준비할 때가 설교 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할 줄 알아야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유일한 영광을, 저는 목사님의 그 고백들 속에서 가장 깊이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압니다. 주님께서 이 광채 저편에 허락하신 그 깊고 서늘한 그늘을. 목사님, 우리는 왜 이 부르심의 이면에 드리워진 이 크고 두려운 어두움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던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

해 부르심을 받았으나 실상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여 낮아짐과 메마름의 시간과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것을 말이지요.

목사님, 헤아려 봅니다.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 시며 옛적 우리들의 청년부의 그 아픔을 결코 이곳에 선 반복하지 않겠노라, 주님과 스스로에게 하였을 그 다짐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그러나 비할 수 없이 더 무거운 것은, 그 거룩한 열망과 동시에 직면해야 하는 주님의 종들이라면 누구라도 외면할 수 없을 우리의 이 작음과 무력함이었음을, 그것은 주님이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의 지난한 기다림과 인내인 것을.

주님과 그 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을 향하여서는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붙잡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이 환난에서도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그 분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주님이 오십니다, 그 분이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것입니다, 선포해야 하는 그 한 가운데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굳세고 의연하게 버텨내야 하는, 다른 무엇이 아닌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었음을 말입니다.

목사님, 목사님과 동행하였던 여정의 이 끝점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오래전 출발점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철부지, 하지만 그래도 마냥 즐거웠던 즐거움이 빛을 바래고 우리가 함께 하였던 그 마지막 구간 웃음은 잦아들며 애통함은 더욱 깊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용서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그 외로움을,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할만큼 헤아리지 못했던 것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마땅히 가까이 붙어서서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지탱했어야 했는데, 그 그늘에 목사님을 그렇게 오래도록 홀로 남겨두었던 것을, 목사님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후회와 미안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만남을 매듭짓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목사님이 우리와 더불어 이뤄드리기 원했던 그 주님의

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토록 크게 치며 올리었을 그러나 여지껏 우리 마음 속에서는 너무 고요하였던 청년과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희생 위에 든든히 세우는 그것,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거짓된 속임수를 단호히 폐하며 우리 가운데 흐르는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게 성도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그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을 다해 지켜가는 그것..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껏 이것 위해 그렇게 애쓰셨으니 이제는 그 곳에서 한가로이 지켜봐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 올림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목사님 앞에 더는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합니다. 당신을 떠나보낸 아픔이 그 누구보다 깊고 오래도록 남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 당신의 부모님과 누이, 그리고 표경림 사모님과 우리 유진이, 하슬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귀한 하늘 가족으로 기억하며 섬기겠으니 부디 마음 놓으십시오.

오 주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종을 사랑하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심정을 이 상실을 아파하는 모든 이들, 이 한 슬픔에 참여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마음의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오라버니요, 남편이요, 아버지요, 마음 깊이 존경하였던 믿음의 스승이요, 영적 동반자였던 주님의 사랑하는 이 종을 이제 그 모든 메마름을 통해 가장 정결하게 씻으시고 어둠이 감히 범할 수 없는 빛으로 둘러 그의 38년 생애 그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목사님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주님의 영원한 안식의 품에 안기시오.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만납시다. Y

2018년 6월 22일

사랑하는 벗 이철웅 올림

행복했던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와서...



최상은(초등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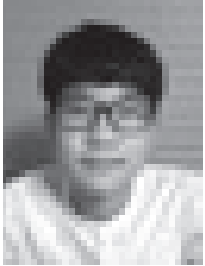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1박 2일 동안 다녀왔다. 주제는 “너의 이름은?” 이었다. 먼저 “옥토끼 우주센터”에 갔다. 놀이기구와 블랙홀 같이 깜깜한 우주선을 탔다. 우리는 우주와 달을 보았다.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갯벌 옆에 있는 큰 수영장 같은 곳으로 가서 미꾸라지를 잡았다. 미꾸라지가 너무 빨라서 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도 난 재미있게 물장난을 했다. 드디어 갯벌로 갔다. 갯벌은 끝이 없이 넓고, 햇볕은 뜨거웠다. 나는 큰 꽃게도 잡았는데, 그만 꽃게에게 손가락을 물렸다.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다. 새우 잡기와 뗏목타기도 즐거웠다. 특별히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말 타기였다. 내가 탄 말은 하얀색 말이었는데 예뻐지만 조금 아파 보였다. 혼자서 말을 탄 것이 뿌듯했다. 그리고 저녁식사로 맛있는 통닭과 불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렸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맛있는 과자도 먹고, 게임도 하며 밤늦게 잠이 들었는데, 폭 잘 잤다.

정말 행복했던 여름 성경학교였다.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



마지막 여름성경학교



신지욱(초등2부)

나는 오늘 퀘스트를 받았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코드명: “여름성경학교를 갔다온 후 글쓰기” 이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래 기다리던 방학을 맞아 여름성경학교를 가기 위해 교회로 갔다. 첫 날 첫 시간은 접수 시간이라서 늦게 오는 아이들을 기다려야 했다. 그 시간이 무척 지겨워서 핸드폰을 하였다.(그리고 몇 분 뒤 모두들 핸드폰을 압수당했다). 아이들이 다 모이자 2층 소예배실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다. 밥이 정말 맛있었다. 밥을 먹은 후 쉬는 시간 동안 남자들은 모여서 축구를 하였다.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어서 공을 낮게 찼어야 했는데, 결국은 공이 넘어가고 말았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그리고 곧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야식을 먹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또 남자 아이들끼리 모여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선생님들의 명을 어기고) 새벽 1시 정도에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우린 예배를 드리고 모두 수영복을 챙겨서 오션월드로 갔다. 가서 신나게 물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 파도타기가 제일 재미있었다. 놀이기구도 타봤는데 놀이기구는 그다지 재미있지 않았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는 저녁을 먹고 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이번에는 세족식까지 하였다. 그리고 또 야식을 먹었다. 이후 레크레이션을 마치고 이번에는 5,6학년이 함께 모여서 잤다. 5,6학년끼리 이야기도 하고 마피아 게임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다.

셋째 날에는 좀 늦게 일어났다. 눈을 부비면서 큐티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여름성경학교는 끝이났다. 이야기 끝~을! Y



하나님과 첫 번째 “대화”



이건희(중등부)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감성 전자음악 작곡가, 이건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1살 때 이곳, 영암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고 그 뒤로 계속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2018년 중등부 여름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저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던 저에게 매우 새로웠던 하나님과의 첫 번째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올려드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전까지는 하나님께 소리 내어 기도 드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련회는 달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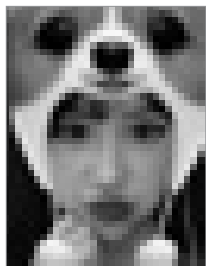
기도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과 그동안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소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대화”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 수련회에 오기 전, 저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련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저를 선택한 것처럼 놀랍게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그런 느낌. 사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분이신지,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지,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존재하시는 이상, 저는 행복합니다. 그분과 “대화”하는 이상 저는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 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





기대한 것 보다 더 재미있었던 여름 수련회



정다희(고등부)

고등부에서 7월 27일(금)부터 29일(주)까지 2박 3일 동안 경기도 여주에 있는 품실채마을로 여름수련회를 간다고 했다. 나는 영암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수련회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친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한편으로 친한 친구가 많이 없어서 가서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살짝 있었다.

우리는 일찍 출발했고, 가는 동안 잠을 잤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식사 준비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일정표를 만들었다. 사실은 처음 본 친구여서 많이 어색했지만 일정표를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곧 어색함도 사라지고 친해졌다. 우리가 일정표를 거의 다 만들었을 때쯤 식사 준비가 끝나서 먼저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늦게 출발한 친구들이 거의 도착했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함께 먹었다. 장영준 집사님이 친구들을 위해 고기 반찬을 만들어주셨는데 엄청 맛있었다!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린 후에는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해 조를 만들어서 서로 자기소개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내가 자기소개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내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재미있기도 했다.

28일(토) 아침이 되어서 우리는 씻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갔다. 빵과 짬과 요구르트 등 너무 맛있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어제 함께한 조대로 모여서 나눠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그것을 연극처럼 연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고, 그것을 배경으로

연기를 해보았다. 일단 배역을 정하는 것부터 다 잘 어울렸고 재미있게 잘했다. 연습을 몇 번 더 하고 다른 조가 연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 우리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했다. ㅎㅎ 생각했던대로 일등을 해서 간식비를 제일 많이 받았다.

우리는 물놀이 장소로 이동해서 옷을 갈아입고 물놀이를 시작하였다. 물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뜨거워서 좀 놀랐지만, 물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다. 선생님들께서 친구들을 물에 빠트리고 있는 모습을 본 나는 숨어서 놀고 있었는데 결국 들켜서 물에 빠져 물을 많이 먹었다. 물을 많이 먹다보니 배도 고프고 해서 간식을 먹으러 올라갔다. 떡볶이도 시키고, 치러스도 시키고, 음료수도 시켰다. 후식까지도 알뜰히 챙겨먹었다.

물놀이가 끝난 후 숙소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캠프파이어를 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불꽃놀이를 했는데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어서 너무 신났다. 즐겁게 놀다가, 벌레도 많고 더워서 숙소로 들어가 게임을 했다. 처음 해보는 게임도 있었는데 순발력이 필요한 게임이어서 잘 못했다. 그래도 1등으로 죽지는 않았다. 마피아 게임에서는 마피아를 찾지 못해서 졌다. 배가 고파 라면을 먹은 후, 그냥 자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게임을 더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나는 1등으로 탈락했다.

29일(일) 아침, 우리는 밥을 먹지 않고 교회로 출발하였고, 차에서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드린 후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 고등부 여름수련회는 너무 재미있었다. 처음 와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것보다 더 재미있었다. 또 가고 싶은 그런 수련회였다. 영암교회 짱! ^^ Y

같이만 다른 수련회



오채훈(청년부)

매년 여느 때와 같이 찾아온 교회 여름수련회,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 청년부 여름 수련회였고, 수련회 준비위원까지 맡게 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수련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낯선 전도사님, 형, 누나들, 막막한 계획들을 보며 과연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단순히 완벽한 준비만을 위해 모인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 있는 준비과정 속에서 나의 긴장과 걱정은 사라지고 있었다. 준비 시간 동안 우리는 미리 수련회에 대해 생각해보고, 기대하고, 또 각자가 평소에도 공동체에서 함께 했으면 하는 것들, 또 주님과 더욱 가까워 질 청년부와의 통로를 모색하고 이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막연히 시간 배치, 물건 준비만을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수련회 준비는 또 다른 ‘나만의 수련회’ 시간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과 기도로 준비된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안성 너리굴 마을에 도착했고,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였다. 그 과정속에서 서로 몰랐던 구성원들과 소통으로 이어지고 단순히 그 사람을 ‘누군지 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등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바로 찬양 시간이었다. 다른 때 같으면 우리는 찬양팀을 바라보며, 준비된 찬양을 함께 부르는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찬양 시간은 서로를 바라 보며 같은 구성원들 중 자신의 마음속에 담긴 말을 하고 싶었던 형제 자매들이 한 명씩 나와 마음을 여는 기도를 하고, 찬양인도를 하면 그 인도에 따라 다같이 기도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었다. 청년부 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아픔을 마음에 품고, 다른 꿈을 가지고, 각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이 찬양시간을 통해, 서로가 서로의 모습이 겹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의 아픔과 감사함에 공감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진솔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초청 강사로 오신 배덕만 교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였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어부가 아니셨던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의문을 품었다. 평생을 어부로 산 베드로는 자신이 몇날 며칠 동안 고생해도 잡히지 않던 물고기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대로 잡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순종의 그물’을 던졌고, 거기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가득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주님을 잊은 채 항상 상황을 마주한 건 나 자신이라고, 자신이 더 잘 해쳐나갈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진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한다. 그리고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 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며,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한다. 고기를 잡겠다는,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급급하기 보다는 먼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수련회 과정 동안 준비한 계획이 조금 어긋나기도 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거나, 빈 틈도 보였다. 그러나 그 때 마다 웬지 모르게 걱정이 되지 않았었다. 다른 때 같으면 실수로 인해 초조하고 어떻게든 고치며 바꾸려 매달렸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예상치 못한 실수 조차도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의 연속이었음을 깨닫게 하셨다. 유난히도 더운 올 여름, 청년부 수련회 자체가 주님의 뜻이었으며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였다.

수련회를 이끌어주신 서우진 목사님, 준비 과정부터 형처럼 배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정치인 전도사님, 좋은 말씀을 전해 주신 배덕만 교수님, 찬양을 인도해주신 손성식 간사님,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준 수련회 위원회 형 누나들, 함께해준 청년부 공동체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며, 교회에서 다시 만날 영암 청년공동체를 기대해본다. Y



★ 유아부 여름성경학교 ★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캄보디아 선교



신가은(중등부)

저희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캄보디아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8월 4일 교회에서 모인 저희는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 시엠립에 도착했습니다.

8월 5일 시엠립에서 첫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앙꼬끄

라의 희망교회에 가서 어른예배에 참석하고 플렁마을로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플렁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림보, 릴레이 공 돌리기, 단체 줄넘기를 하며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앙꼬끄라의 희망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뒤 같이 간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6일에는 앙꼬끄라의 희망교회에 다시 가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친구들과 에코백 만들기, 빙고, 몸으로 말해요 게임, 단체 줄넘기, 풍선 터트리기 등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야시장을 방문해 캄보디아의 물건들과 음식들을 구경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온 지 네번째 날에는 앙코르왓을 관람했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앙코르왓을 실제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었습니다.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앙코르왓을 관람한 후 5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다음 사역지인 프놈펜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놈펜에 도착해서 한식당에 갔는데 현지 음식도 좋았지만 오랜만에 한식을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요일은 껌폰스프에 가서 청소년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과 게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판자촌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엔 가난한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에게 빵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판자촌은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살고 계셨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헤브론 선교 병원에 가서 의료 선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카페에 가서 음료수와 커피를 마시고 킬링필드에 가서 관람했습니다. 킬링필드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곳인데, 캄보디아의 아픔과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킬링필드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5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시하누크빌로 이동했습니다.

금요일에는 시하누크빌에서 첫 사역을 했습니다. 시하누크빌에서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사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게임으로 재밌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인 토요일에는 시하누크빌의 아름다운 해변도시를 둘러보고 프놈펜 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집에 가는게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을 했었는데, 직접 가서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 친구들을 사역하면서 가난하지만 그래도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으며 어쩌나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좋아해 주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선교에 같이 가게 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과도 더욱 친해져서 좋았습니다. Y

캄보디아에 갔다 와서....



이준섭(중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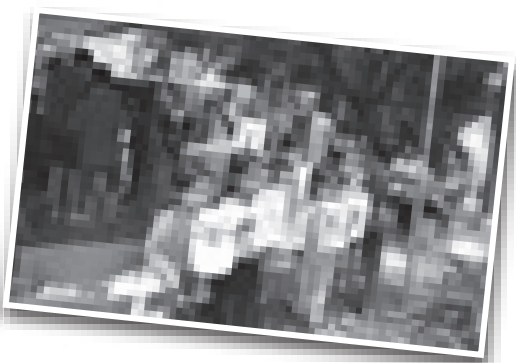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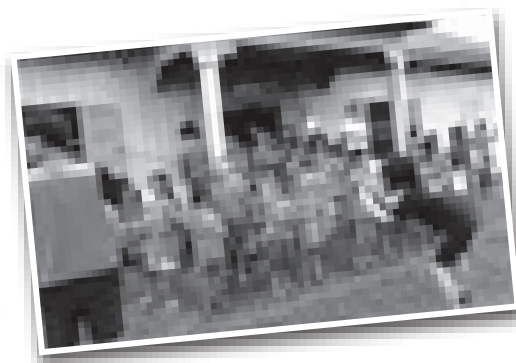
저는 8월 4일부터 8월 12일 까지 캄보디아로 선교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해외 선교훈련 소식을 듣고, 1주일 간 생각 끝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가기로 결정한 이유는 캄보디아 아이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서 미래에 아이들이 우리처럼 선교를 다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경험할 생각에 마음이 설렘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는 몰랐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캄보디아가 얼마나 어렵고 아픔이 있는 곳인지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양꼬따라오 희망교회에서 첫 사역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미래의 훌륭한 아이들로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사역은 아주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첫 사역을 마치고 양꼬르왓에 방문하여 캄보디아 사람들의 저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 장소인 프놈펜 껌퐁스프의 동부지역 학습센터 사역과 세 번째 사역 장소인 시하누크빌 오

참나교회 사역에서는 아이들에게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만큼 은혜와 보람이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역하기 전 빈민가에 빵을 나눠주러 갔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캄보디아의 어려운 현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헤브론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해주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킬링필드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아픔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 어렵고 슬픔에 잠겨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해외선교훈련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이 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지 아이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웃는 것을 봤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 올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으며, 중학생인 저에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Y



캄보디아 선교훈련을 다녀온 아이들의 이야기



중등부 <1학년>

남윤찬

1. 캄보디아가 생각보다 덥지 않아 지내기 좋았다. 좋아하는 과일인 망고를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2. 힘들었던 것은 낯선 나라에서 선교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과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었다. 그래도 형 누나들이 도와주고 선교사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견딜만했다.

3. 태어나 지금까지 영암교회 외의 다른 교회는 거의 다녀보지 못했는데 이번 선교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환경이 열악한 여러 교회를 경험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태어나 영암교회에 다닐 수 있는 현실에 감사하게 되었다.

최권영

1.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천막교회에서 기도드리는데 불쌍하고 프놈펜에서 빵을 나눠줄 때도 가슴이 아팠다.

2. 처음 보는 과일도 먹어봐서 신기했고 동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한국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툽툽이라는 대중교통을 처음 타서 재미있었다.

3. 나는 이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본다.

박예원

1. 힘들었지만 우리는 잠시 왔다가 가는 건데 여기 아이들은 이런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구나.. 생각하니 조금 슬펐다.

2. 상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예뻐서 안아주고 놀

아줄 때 나도 즐거웠다.

3.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중등부 <2학년>

남궁승준

캄보디아 아이들이 못사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심에 다음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빛을 보았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양주성

캄보디아를 가서 선교를 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활동할 수 있어 영광이었고 재밌었고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정영민

캄보디아 선교여행 때 현지 아이들과 노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 다음에 또 가고 싶습니다.



중등부 <3학년>

곽유진

1. 캄보디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조금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던 것이 더 많았다.

3. 같이 갔던 친구들한테 고마웠다

박예인

1.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2. 그 아이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느꼈다.

3.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고 낙심이 되는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느꼈다.

임성택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많은 걸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거기선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도 하루 빨리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며, 아직 불교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 기독교의 나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홍용수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해외선교를 함께 해서 기뻐합니다.

박은빈

1. 처음에는 설레고 기대도 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 너무 좋았다.

2. 환경은 우리보다 좋지는 않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나까지 밝아지는 것 같았다.

3.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박미선

1. 아기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2.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3. 좋은 경험이었다.

윤이소

1. 처음 선교를 해봐서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설렘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가기 싫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2. 그래도 막상 가서 아이들을 보니 행복한 마음과 이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선교라는 것은 단지 가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한 분으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Y**



아프리카! 케냐! 몸바사! 우쿤다! DBAA 학교!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나라



고은(청년부)

2018년 7월 5일, 설렘과 기대를 가진 채 18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했다. 장시간의 비행으로 인해 피곤했지만, 우리가 아프리카에 왔다는 신기해하고 설렘했던 표정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바로 다음 날 케

냐 나이로비에서 기차로 5시간, 버스로 2시간을 들어가 우쿤다 지역에 위치한 'DIANI BRIGHT ANGELS ACADEMY' 학교에서 5일 동안 사역을 진행하였다. 우리가 한 사역은 벽화 활동, 매일 있는 채플시간에 찬양, 스킷드라마,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5일간 학교에서 자고 씻고 먹고를 반복하고, 망고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보며 우리는 일상적인 이야기, 사랑이야기,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깊이 나누었다.

등교시간보다 훨씬 일찍 학교에 오는 아이들과 아침에 '하바리~', '굿모닝~'이라고 외치며 인사하고 하이라이프 하던 순간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학교 수업이 진행되면 우리는 벽화 작업을 계속 했고, 쉬는 시간, 수업 외 시간에는 계속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춤도 추고 같이 게임을 하기도 했다. 우리를 보며 낯설어하고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꽤 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함께 웃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함께 부를 수 있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

그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믿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불렀던 찬양가사인 'Yes, I Love My Jesus!'를 진심으로 외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무슬림이 95%이상인 그 우쿤다 지역에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많은 무슬림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 학교에 보낸다.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였고 앞으로 이 친구들의 삶에 함께하시고 만나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씨앗이 심기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케냐팀 멤버들과 이번 선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을 꼽는다면,

참 좋은 신앙의 선배인 이성호 선교사님과 무시미 선교사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성호 선교사님은 케냐 나이로비에 위치한 '브릿지 월드 대학'에서 목사나 목회를 할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기독교적 세계관, 신앙관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더불어 그렇게 사는 것(기독교세계관으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다. 청년들의 나이가 본인의 아들, 딸 정도의 나이였지만 계속해서 존중해주시고 존대하시는 모습, 우리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고 공감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 되었다.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나는 매일매일 수련회하는 듯한 은혜와 감동을 느꼈다.

무시미 선교사님은 케냐 출신으로 우리가 사역한 케냐 우쿤다의 사립초등학교 'DIANI BRIGHT ANGELS ACADEMY'에서 교장선생님으로,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계신다. 부족과 지역을 중요시 여기는 케냐의 사회적 분위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아닌 우쿤다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루하루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요즘 ‘눈에서 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잘 쓰는데, 이 표현이 무시미 선교사님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만큼, 선교사님은 아이들과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볼 때에도 사랑이 듬뿍 담긴 눈과 표정으로 함께 해주셨다.

더불어 우리 케냐팀에 속해 있던 멤버들의 조합과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도 참 좋았다.

서우진, 김주환, 고은, 구상미, 권하나, 김진희, 박인도, 여예인, 원소영, 윤구, 윤민구, 하운영 케냐에 가져간 책 중 하나인 ‘1세기 교회예배이야기’ 책에서는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서로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은사도 있다. 신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나, 세상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서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은사도 있다. 교인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도와주거나, 사람들을 조화롭고 응집력 있는 모임으로 결속시켜 주는 은사도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질병과 같은 신체의 필요를 돕는 은사도 있다. 너무 심오해서 일반 언어로는 비길 수 없는 것을 그들의 신에게 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을 설명하도록 돕는 은사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이기적으로 혼자 소유해서는 안 된다...(중략) 아굴라는 역설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사를 발휘하기를 열망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참 사랑으로 돌보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자질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위의 책 내용처럼, 함께 했던 팀원들은 각 사역과 그 선교과정에서 각자의 은사와 특성으로 서로가 도움이 되었고, 서로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케냐’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각 팀원들이 베푼 사랑을 통해 아이들과 선교사님들이 감동과 기쁨을 얻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있다. 케냐에서 만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영암교회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을 전하는 통로 되기, 케냐에서 마주한 상처들과 현실 앞에 함께 기도하며 우리 안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린 은혜들을 지키고 함께 걸어가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고!!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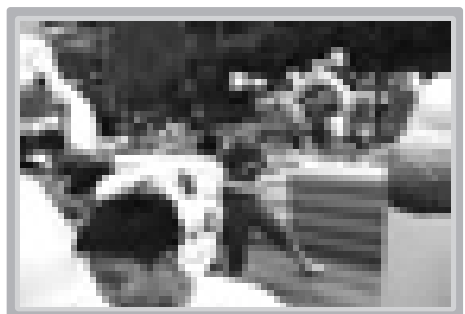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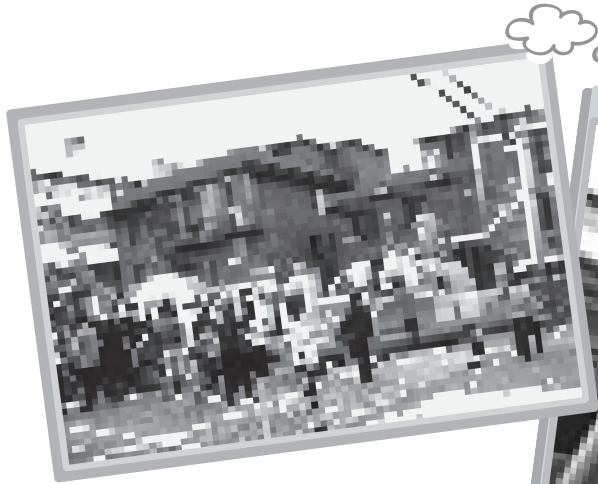


해피파티



정 Nice!!





안녕하세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전도사

영암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 전도사입니다. 제가 영암교회 부임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가며 스쳐가며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 영암지로 다시금 인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요즘은 영암교회가 고향처럼 포근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유난히도 폭폭 찌는 여름,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일 하랴, 카페 나가랴 정신없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씩 무사히 잘 보내고 있답니다. 사회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저에게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카페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언젠가 인사동에 놀러 오시면 제가 꼭 커피 한잔 내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신대원을 졸업하고 원래 1년간 사회경험을 쌓을 생각이었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아는 사람도 다 목사님에, 전도사님인지라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는 폭이 좁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체하고 있는 분의 제안이지만) 그래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국민은행에서 청원경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경험, 소중한 생각, 소중한 마음을 갖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저랑 제일 친한 친구녀석(진영채 전도사)이 몇 번이나 영암교회를 추천해줘서 여기에 글을 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제 이름은 큰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에 대통령이 한 명은 나와야 된다는 큰 포부(?)로 이름을 지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바람은 제가 신학을 전공하는 바람에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꼭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곧 출산을 앞두신 분께는 제 이름을 추천해주고 싶진 않네요. 하하하.

아무튼 제가 영암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목사님, 좋은 청년들 만나서 저는 교회 오는 것이 매일 새롭고 또 즐겁습니다. (가끔은 늦잠 자고 싶지만) 우리네 인생, 참 사는 것이 목록치 않지만 그래도 날마다 작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암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Y

15기 아기학교를 마치며



서경희 권사

저는 친구들이 손주를 데리고 아기학교에 다니는 것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며 자랑(?)하는 것을 들으며 손주가 생기면 나도 꼭 아기학교에 데려가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외손녀 조예은이 태어났고, 그 때부터 손녀를 데리고 아기학교에 갈 수 있겠다는 기대로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올 봄 15기 아기학교 현수막이 교회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던가요, 우리 예은이가 어느덧 아기학교에 갈 만큼이나 자랐습니다. 수강신청을 하고 개강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개강 날, 설레는 마음으로 손녀를 데리고 아기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아기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아기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과 오는 아기마다 품에 꼭 안으시고 사랑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 첫 날 첫 시간부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예은이는 아기학교 아기들 중에 가장 어린 아기여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이 오시고, 개강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기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아기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주 한 주 아기들이 하나님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노래로, 단막극으로, 때로는 만들기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음악과 미술, 체조, 마사지 수업 등으로 아기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기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라바랜드로 갔던 야외수업은 예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기들이 가장 좋아 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놀이동산에서 그리고 물놀이장에서 함께 어울리며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신이 나던데 다른 부모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12주가 끝나갈 무렵 신기하게도 소극적이던 예은이는 찬양도 따라하고 기도도 아멘으로 함께 하며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아기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기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매 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신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기들을 만날 때마다 사랑의 기도를 해주시던 임영신 전도사님, 수업 때마다 정성을 다해 간식을 만들어 주신 김종숙, 유미영 선생님, 예쁜 사진으로 순간순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신 심진영 선생님, 유전에 관 계없이 늘씬한 아기로 성장한다며 아기마사지를 열심히 가르쳐 주신 염미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으로 아기학교가 성장하고 그 안에서 아기들이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남을 믿습니다.

이제 예은이는 아기학교때 다녔던 선교관 앞만 지나가도 들어가자고 떼를 씁니다. 제 친구들이 그동안 했던 아기학교 자랑이 이제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벌써 가을 학기가 기대되며 기다려지네요. Y

중,고등부 교사로서 20년,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박형우 안수집사

할렐루야!

먼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사로 세워주시고, 매주, 매년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제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도 아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우연찮게 중등부 성가대를 지휘하시던 선생님께서 그만두시면서 잠시 대타로 중등부 교사를 시작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부를 경험한 저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서였는지 아이들에게 제 말만하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은 혼내기도 하면서 짧은 청년 교사로서의 시간을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내면서 깨닫는 것은 교회학교 교사로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는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참고 기다리시는지, 거짓말 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마음과 저를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시는 무한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사로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기에 받았던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해 20년 근속상을 받는 날까지 교사로 20년을 지내온 것이 하나님께 자랑이고 저 스스로도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가진 사랑과 생각만으로 가르쳤던 순간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상을 주시는데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영혼 한영혼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올 해는 고등부 교사로 섬긴지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중등부에 18년 고등부에 2년이네요.

을 해도 맡겨주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한 사람을 보여 주셨습니다. 몇 년 지났지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데 혼자 살고자 보트를 타고 탈출하고 있는 세월호 선장을요. 가만히 보니 그 얼굴은 바로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률이 4%가 안된다고 교사 교육 대학 때 강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한 반에 한 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저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는 혼자만 살겠다고 탈출하는 선장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선장을 죽어 마땅하다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을 구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과감히 바다로 뛰어든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캄캄한 바다로 뛰어 들어가 아이들을 구하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아직도 머뭇거리입니다.

더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이 정도면 되겠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학교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근속 20년상을 받으며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교사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날까지 죽어가는 아이들을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며 교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매주 아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공회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Y**



하나님, 나의 아버지~!!



김도연 성도

언제던가 2005, 2006 .. 벌써 14년! 나는 그 긴~세월동안 세상을 떠돌다 2018년 여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나름 세상의 법질서를 위반하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왜 이리 내편이 아닌지, 나는 잘못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도 껍딱하고 힘듦의 연속인건지. 가끔은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 할 때가 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지난날 나의 고난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그와 한번 세우신 언약은 꼭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중학생 때 긴 줄이 매달려있는 종을 쳐서 예배시간을 알리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 남동생과 둘이 다녔었다. 목사님께서 오르간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던 내게 툴툴이 연습해서 예배시간에 치도록 하셨는데, 지금도 못하지만 4부로 화음을 넣어 쳐야 되는 찬송가가 어렵기만 했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엄마까지 돌아가셔서 5남매 중 막내인 동생과 나는 둘이 서울로 올라와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일이면 동대문에 있는 동인교회에 다녔었다.

둘이 같이 오가며 동생의 지휘에 박자와 화음을 맞추어 ‘주를 양모하는 자’ 등 찬송가 부르기를 즐겨했고 하루하루 힘들었지만 둘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는데 그 무렵,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 이 다음에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장차 내가 낳은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 내가 했던 그 기도는 수십년이 흐른 지금에도 잊혀지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이후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동안 동생은 주경야독을 하며 신학교를 다니며 10년을 넘게 공부하더니 드디어 목사님이 되셨다. 동생이면서도 아버지처럼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동생은 큰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지내다 개척교회를 열고 하나님나라를 넓혀갔는데 나는 이것저것 사업늘리기를 하는 남편을 돕느라 결혼초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돈벌이를 위해 일선에 나섰다. 가물에 콩 나듯 가끔씩 누나를 본 동생이 때마다 “교회를 다녀야지”말을 해 주었으나 나는 미신이 가득한 집안에서 푸닥거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세 아이들과 살아내야겠다는 일념뿐 하나님을 멀리한 채 지내다보니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몸과 마음이 차츰 쇠약해져 거리를 떠돌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왕래는 하지만 십수년을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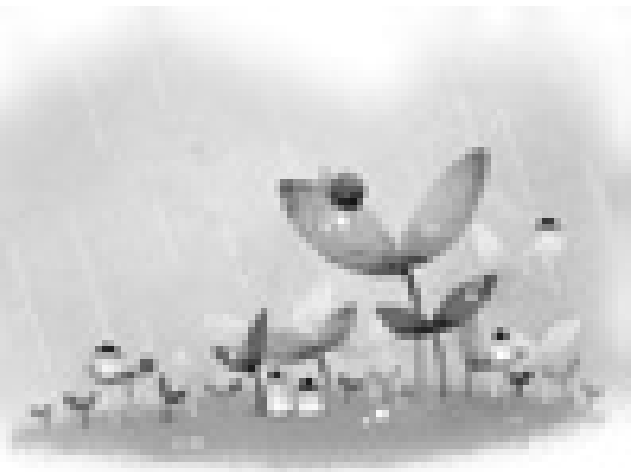
되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허전할 때 교회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교회 인도를 받게 되었다. 그 당시는 둘째 딸이 온 몸에 물집이 잡히는 알레르지가 발병해 병원에선 ‘요즘 젊은 아가씨들한테 유행하는 병’이라며 명쾌한 치료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누구라도 붙잡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딸의 병으로 인해,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질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전도해주신 신영옥 권사님과 새가족부 이영희 집사님도 같이 기도주셔서 요즘은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옛날 내가 아가씨였을 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둘째 딸로 인해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이다.

할렐루야~~!!

거의 나의 기억에 없는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일곱살이던 해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한 없이 포근한 하나님 품, 나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오랜 세월 방황했지만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 겪을 수밖에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나의 부수어진 신앙을 다시 잘 싸매어 온전히 하고 주님 안에서 참평안을 얻고 싶다.

언젠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족이 하나로 화합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나뿐인 동생 김기엽 목사님~!! 누나 걱정 이제 그만, 천국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Y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신영옥 권사

새벽기도 때 마다 주문을 외우듯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천국잔치(새 생명 잔치)명단을 작성 카드를 내지 못했다.

웬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생전 처음으로 노래교실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김도연 씨를 알게 되었다.

노래 강습시간이 끝나고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어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게 되었다. 안 다닌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김도연 씨와 시간을 같이 하려고 애썼다.

만날 때마다 영암교회를 자랑하며 목사님을 자랑하며 말씀도 소개하였다.

그러던 중 김도연씨가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였다.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행 도중 주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짧게나마 전하며 대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여행에서 돌아가면 주님을 영접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영혼 김도연 씨가 새 생명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새 신자 교육을 잘 받고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기도와 환영의 박수를 받으며 영암의 가족이 되었다.

가슴 벅찬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감사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김도연 씨를 선택하셨고 그 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제 새 가족이 된 김도연 씨의 자녀와 손자까지 구원의 반열에 들기를 마음에 품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중이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Y

천국 소망 품기



백선실 집사

저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예담 동산에 다녀왔습니다. 두 아이가 캄보디아 선교 훈련을 함께 떠나, 처음으로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선물같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러 계획들로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아이들이 변화

되어 돌아왔을 때, 엄마도 변화되어 사랑으로 맞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나도 시간을 떼어 예배드리겠다는 결단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참석 기간동안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안정원 권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아이들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웠지만,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참석자가 혼자인데도 남궁식 집사님께서 일산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오히려 저의 참여를 기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따뜻하게 여러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밥 먹을 땐 더 달라고 해서 많이 먹고, 몸 찬양도 신나게 하고, 뭐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열고 임해보세요.” 과연 예담 동산에 들어가서 집사님의 조언대로 마음을 열고 참여하니 매 순간 그만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다보니 혼자서 뽀죌한 순간들이 간혹 있었지만 티타임 때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곳곳에서 만나는 영암교회 섬김미들을 뵈 볼 때 마다 더 반갑고 좋은 마음에 함박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배낭을 만들어 주신 배동화 권사님을 뵈고 감사 인사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아이들

소식으로부터 한걸음 더 떨어져 있지만, 꼭 뵈고 감사드리려 했던 권사님을 이곳에서 만나니 놀랍고, 주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받은 사랑과 기쁨이 많지만 저는 찬양시간에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첫날 예배실에 가득해서 터질 듯한 찬양 소리와, 아름다운 화음들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소리 한복판에서 함께 찬양 할 때 느껴지는 감동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찬양하겠구나 생각하니 영원히 찬양할 그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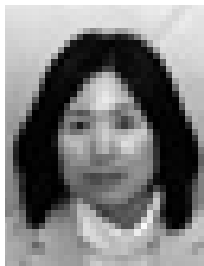
그 기쁨과 동시에 평소에 반주하면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내 안에 두개의 파이프가 있어서 각각 기쁨과 슬픔이 솟아나듯 말입니다. 긴 찬양시간 동안, 내 마음의 슬픔과 건반 위에서 느꼈던 자괴감을 비워내고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이너 대신 메이저 코드를 써야하고, 세 박자를 길게 끌 때 채워 넣고 표현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자유함을 얻은 기쁨도 누렸습니다.

예담 동산을 통해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야” 라던 신봉례 권사님, “성도라면 언젠가 한번쯤은 가 볼만한 곳이야”라고 하신 어머님, “실컷 말씀듣고 찬양만 하다 오는 곳이야”하시던 박주현 집사님의 말씀으로 저도 예담 동산을 추천드립니다.

(긴 젓가락으로 서로 밥을 먹여주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그건 직접 확인 해 보세요^^) Y

제1회 기도하는 아이들 캠프를 다녀와서



홍정화 집사

CIP(Children In Prayer)기
도란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기도
자로 세우는 신앙 양육으로 4
단계 대화식 합심기도이며, 훈
련의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구
기도를 통해 말씀과 기도의 균
형을 바르게 하고 기도의 수준

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우리 교회에서 부모교육으로 3주 과
정의 MIP세미나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시간
과 여러 어려운 상황속에서 갈등하다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세미
나가 끝난 후 몇몇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함께 매주 한
번 씩 모여 임영신전도사님과 함께 소그룹으로 실습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에 둘째 석환이의
친구 엄마로부터 자녀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듣고 MIP를 소개하며 그렇게 짝기도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2월 갑자기 임전도사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엄마들 전국총무단수련회 참석을 권유받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처음으로 듣게 된 CIP(기도하는 아이들)비전 나눔 및
사역, 간증, 시범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뭇지 모
를 가슴 뛰는 경험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
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아이들 캠프 스텝으로 섬기
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두 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
도방에 말씀으로 합심동의 기도문을 올리고, 매주 월
요일 일원동에 있는 밀알학교에서 4단계 기도회를 시
작하여 교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돌아가며 금식하는 것과 하루의 시작을 MIP, CIP기

도문을 올리는 것이 출근준비와 등교준비 등으로 때
로는 너무 바쁘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괜히 시작했
나 후회하는 마음이 캠프가 얼마 남지 않는 날까지도
계속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와 그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CIP캠프를 위한 놀라우신 하나님
의 선하신 계획과 이 땅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과 비전
을 나에게 선물로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과 은혜였음
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명의 아이들과 10명의 보호자
및 스텝이 참석하였는데, 집회 첫날 도착 후 수영로교
회 윤주형 목사님과 R3찬양팀, 그리고 말씀을 랩으로
암송하는 것으로 시작된 캠프는 111년만의 폭염이 무
색하리만큼 뜨겁게 찬양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은혜
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강당을
가득 메우는 뜨거운 아이들의 찬양의 목소리, 그리고
6개의 주제 말씀 랩과 복한 땅을 생각나게 하는 찬양
이라고 윤주형 목사님이 소개하신 ‘꽃들도’라는 찬양
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합니다. 캠프가 끝난 이후
에도 많은 아이들이 찬양과 랩을 들려달라는 요청이
빗발친다는 엄마들을 소식을 기쁨과 감사로 교사 카
톡방을 통해 나누기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의 함승수 목사님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말씀과 통일 비전의 주제곡으로 불렀던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라는 찬양으로 많은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울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기
적과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또한 이 찬양을 통
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31살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지 않아 주일학교 수련회나
캠프를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아쉬움과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 빠져 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고통과 낙심의 눈물과 두려움을 덮어주는 은혜를 경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과거와 미래를 제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겐 의미가 없으며 부족함도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와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너무나 빠빠한 스케줄로 인해 물과 커피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아이들의 교재4권이 든 무거운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며 더위와 씨름하였지만 교사 뿐 아니라 아이들조차도 즐겁게 웃으며 2박3일을 함께 하였던 것이 참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매일 매일 구체적으로 기도제목을 올리고 합심하여 준비한 우리의 기도예 응답하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기도의 4단계 강의와 매실습시간은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짝기도를 통해 기도예 살을 붙이고 더 풍성한 기도를 하도록 하는 훈련이었지만, 제가 맡은 1학년 학생들에겐 쓰는 것조차 어려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말씀으로 찬양, 고백, 감사, 중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더듬더듬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된 세 번에 걸친 4단계 기도훈련을 모두 마치고 마침내 아이들은 SIP(Science In Pang Pang) 과학탐구놀이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에어로켓과 버블을 만들어 야외로 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즐겁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이 더위를 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더러는 에어로켓이 너무 높이 날아올라 나뭇가지에 걸리고 지붕에 떨어져 잃어버리게 되자 우는 아이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아이들의 순수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마음껏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니다.

마지막날 MIP대표 수영로교회 황숙영사모님과 힘들었지만 엄마와 아이들 모두에게 유익했던 전체복습을 마치고 통일전망대로 이동하여, 송실대 통일지도자센터에서 나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람을 하였고, 뜨거운 햇빛아래 북한땅을 바라보며, 하층엽목사님의 3분 스피치로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하라”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는 일일 도우미 김현숙집사님의 인도로 관람하는 코너마다 함께 모여 주어진 말씀을 읽고 기도하므로 통일에 대해 짧고 정신이 없긴 했지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 2절) 기도하는 아이들의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에 불과한 우리 자녀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엄마들과 기도하는 자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CIP캠프를 통해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의 이유도 모르고 찾지 않은 채 오로지 나의 유익과 나의 자녀들만을 위해 기도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 강력한 중보기도자!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을 사랑과 은혜로 가르쳐 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1회 CIP캠프 아이들 총 257명, 반교사 75명, R3 찬양팀 포함 그 밖의 스텝들 54명, 인솔자와 부모님들 57명 총 443명이 2박 3일 동안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의 잔치 속에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Y**



CIP수련회에서의 값진 시간



윤정희 집사

카톡~카톡~

요즘 이른 아침 카톡 알람 소리가 아침 기상벨이 되었습니다. CIP수련회를 참가하겠다고 신청한 후 전도사님의 기도문이 우리의 아침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문을 읽으며,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으로 답하며, 정말로 기도문의 내용처럼 나와 우리 아이들이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수련회 날, 교회에 모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출발하였습니다. 낯선 길을 운전해서 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지만 안전한길을 통해 늦지 않게 도착하였습니다. 광림세미나하우스, 제법 큰 규모의 장소가 꽤 찰 정도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부산, 여수, 양산, 안동... 새벽4시에 출발하여 이곳에 도착하였다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보며 CIP수련회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층 강당은 아이들로 꽉 찼고 엄마들은 2층에서 아이들을 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찬양시간... 찻잔처럼 강당을 울리는 아이들의 찬양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CIP는 말씀기도+함집기도(짜기도)를 토대로 찬양, 고백, 감사, 중보의 순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토대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찾고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고백하고 생활 속에서 감사의 내용을 찾으며 나와 학교 선생님, 가정,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CIP교육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교육받고 적용하고 있는 아이들도 제법 많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목청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만 보아도 너무나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전국 곳곳에 기도의 용사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가 흘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도 이렇게 신앙이 커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시편 8:2)’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큰 권능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엄마가 아이들을 기도하는 아이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CIP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아이들에게도 권능을 세워 주셨음을 알게 하며, 우리가 쉽게 쉽게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박3일이라는 시간은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소망하게 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Y

찬송가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김혜림 집사

마태복음 8장 24-26,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다스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잠잠케 해 주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메리 앤 베이커가 작시하고 리치먼드 파

머 박사가 작곡한 ‘구주여 광풍이 불어’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메리 앤 베이커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언니, 남동생과 함께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무척 사랑하던 남동생이 결핵에 걸리게 되자 두 누이는 춥고 습한 시카고 보다, 병을 치료하기에 더 적합한, 건조하고 따뜻한 기후의 플로리다로 동생을 요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남동생의 치료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 누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었친 데 덮친 격으로 베이커 자신도 병이 들어 동생에게 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몸이 성하였어도 끼니만 겨우 해결 할 수 있는 형편이었던 두 누이는 남동생이 죽기 2주전까지 겨우 서신으로만 서로 안부를 묻곤 하다 끝내 동생의 죽음을 알리는 비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비가 없어 그의 시신을 가져올 수도,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던 두 누이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큰 풍파를 겪으면서 그들은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교회 지휘자인 리치몬드 파머 박사의 요청으로 찬송시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아픈 경험을 그

대로 녹여낸 ‘구주여 광풍이 불어’입니다.

삶에 찾아온 큰 시련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그녀의 마음을 표현하는 1, 2절

1.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싸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돌아 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2.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싸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나를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난 후 누리게 된 평안을 노래하는 3절

3.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서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다가 고요하면 배를 타고 수영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임무를 띠고 배가 앞으로 전진해야 할 때는 적당한 풍랑이 있어야 배가 앞으로 나가기에 수월합니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은 언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해 할 수는 없어도 신뢰 할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신 일, 또 하실 일들을 바라본다면 넘지 못할 풍랑이 없을 줄 믿습니다. **Y**

*김혜림 집사님은 토요일 5시에 방송되는 극동방송 라디오의 찬송교실을 진행하면서 소망교회 성가대, 수원 청소년 합창단,

CTS 콘서트 콰이어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남권 자립화 대상교회 방문



안영희 집사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대해, 그저 주일을 잘 지키면서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기며, 그 외 다른 교회의 일들은 바쁜 저에겐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립화 대상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새벽 6시 담임목사님, 김남균 목사님, 장지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출발하여, 여주 휴게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5시간에 거쳐 영덕군 축산면에 있는 상원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상원교회의 전성환 목사님께서 교회소개와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셨다. 50년이 넘는 교회이며, 교회 노령화로 젊은이는 찾아볼 수 없고,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위기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시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 하신다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상진 목사님의 말씀, 고전 3:10~11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형제교회와 농촌교회를 빚진 자로 마땅히 섬겨야한다”는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웠습니다. 상원교회는 장지우 장로님의 외할머니가 세우신 의미 깊은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비가 왔지만 갈 길이 먼 우리들은 서둘러서 두 번째 교회로 향했는데, 아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손을 흔드는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이 왠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1시간 30분을 거쳐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백송교회에 도착하니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백송교회의 이운형 목사님께서 교회소개와 기도제목을



말씀하시면서, 4명의 신자가 결신하고 정착하였다고 합니다. 도시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농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였습니다. 사역하신지 6년이 되셨는데, 성전수리가 문제인 가운데, 현재는 안팎으로 조금 수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욕봉사를 승용차로 4분씩 모시고 봉사하고 계시는데, 차가 적어 어려움이 크시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봉사를 하시는데, 재정문제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더이상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유상진 목사님의 말씀, 출 15:27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복음의(생수) 오아시스를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라”는 말씀을 마치고, 선교위원장이신 장지우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복숭아캔, 물티슈, 선교비를 전달해드렸습니다. 농촌에서는 물티슈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촌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실정이 우리의 가슴에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을 구하시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평교회로 향했습니다. 예천군 유천면에 있는 30분 거리의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이 곳 역시 목사님,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성평교회 김상갑 목사님께서서는 조금 젊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 소식과 기도제목을 말씀해주셨으며, 교회의 표어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였습니다. 교인 수 15명으로 유지하고 계시는데 전도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 은혜로 지켜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상진 목사님의 말씀, 신 28:33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시고 안아주시며, 앞서가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낙심치 말고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셨습니다. 성평교회의 기도제목은 교회부흥으로, 젊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자립할 수 있고, 어르신들께서 복된 죽음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주께서 성평교회에 젊은 일꾼 보내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 드렸습니다.

세 교회를 방문하며 깨달은 점은 농촌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과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도시교회가 형제교회로서, 빛진 자로서 함께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전 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 이 말씀대로 농촌교회도 우리의 지체로서 함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인걸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Y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까? -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 속의 빛'-



강진구 안수집사
(영화평론가)

무신론 시대에 영화로 하는 기독교 변증

최근 미국에서 제작되고 있는 기독교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간증이 아닌 변증의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영화들은 현 시대의 교회를 향한 무신론적이며 세속적인 사회의 공격적 태

도를 보여주는 한편으로, 이에 대한 기독교의 논증적 방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은 죽지 않았다1,2〉(2014, 2016)는 기독교변증영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영화들이다. 〈신은 죽지 않았다〉1편에서 대학 신입생 조쉬 휘튼(셰인 하퍼)은 무신론 교수의 철학수업시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라는 교수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면서도 또한 지성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서구 대학세계에 만연한 무신론적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었다.

〈신은 죽지 않았다〉2편은 공교육 현장에서 기독교신앙이 처한 위기와 위협적인 상황을 매우 밀도 높게 보여주었다. 공립학교 역사수업시간에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에 예수의 사상이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크리스천 역사교사 그레이스(멜리사 조앤 하트)는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 다시 말해서 기독교 믿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성을 근거로 답을 해주지만 뜻밖에도 종교의 자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상이 교회에 바라는 것은?

다시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의 세 번째 차례가 돌아왔다. 마이클 메이슨 감독의 최신작 〈신은 죽지 않았다3:어둠 속의 빛〉은 반기독교적인 미국사회의 정서에 대해 충실한 신앙적 답변을 보여주며 기독교 변증영화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신은 죽지 않았다1,2〉에서 조연으로 출연했던 데이브 목사(데이비드 A. R. 화이트)는 대학 캠퍼스 안에 위치한 150년 전통의 세인트 제임스 교회의 담임목사로 등장한다. 전편에서와 달리 이번 영화에서 데이브 목사는 심각한 고난과 갈등에 직면하고 만다.

무신론 분위기가 팽배한 대학의 학생들은 예배당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퇴출되기를 강하게 희망한다. 더군다나 교회에 불만을 가진 대학생 아담 리처드슨(마이크 매닝)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교회에 벽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바람에 지하실에 있던 가스파이프가 터지고 이를 알지 못한 채 지하실에서 전등을 켜던 데이브 목사의 절친 주드 목사는 가스 폭발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가슴 아픈 사건을 맞이하고 만다. 불타버린 교회를 바라보는 대학생들은 이 기회에 교회가 대학에서 떠나기를 바라지만 데이브 목사와 크리스천 학생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지키기 위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갈등을 푸는 방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세속적이며 무신론자들과의 대치 국면을 해결하는 방안은 교회를 내쫓으려는 사람들 머리 위로 천둥벼락이 내리기를 기도하는데 있지 않음을 영화는 보여준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학교당국의 처사에 낙담만 하는 것으로 끝내지도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방안은 캠퍼스 내 교회가 있다면

학생들이 교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회의 존재목적에 다시 한 번 정립하는 일이다.

최고의 기독교변증은 사랑과 용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무신론자로 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 즉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가치관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교회에 벽돌을 던진 리처드슨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데이브 목사의 휴대폰에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리처드슨이 기대했던 것은 데이브 목사를 통해 예수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이었다. 비록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친구가 죽고 예배당이 불타 버린 현실에서도 과연 목사는 문제 많은 자신을 품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교회의 가치는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교회가 세상과 똑 같이 자신의 이권만을 주장하고 전도의 대상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시해 버린다면 교회의 본래 역할을 감당하기란 결코 쉬울 수 없는 일이다.

데이브 목사는 불타버린 예배당을 포기하는 대신 대학 당국의 지원을 받아 외곽에 새로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 약속을 받는다. 예배당이 있던 자리에는 학생들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학생회관이 들어서게 되고 그 안에 학생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센터 설립 또한 약속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학생들과 대학당국의 요구



에 교회가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에 응답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은 오히려 학생들을 감동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자신들처럼 스스로의 주장과 이익을 싸우고 상대방을 뭉개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과는 뭔가 다른 행동을 원하는 기대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현장에서는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기독교 변증적 성격을 지닌 이 영화가 제시하는 메시지는 세상 가치에 대한 예수님의 역설에 있다. 현대의 크리스천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그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뺨을 맞을 때 왼 뺨을 대어주고, 고소당해서 속옷을 빼앗길 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강요받을 때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해주는 일(마5:39-41)을 요구받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것(마5:44)을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일 수 있음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Y

영암교회 교육관 리모델링

박종성 안수집사(은광교회)

샬롬! 하나님께서 영암교회에 브살렐이란 머슴으로 파송 보내신 박종성 집사입니다.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총 감독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건축 전문회사를 20여년간 운영하다가 이제는 교회건축 전문가가 필요한 교회에 불려 다니며, 오로지 디자인이라는 달란트사역에만 충실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영암교회 리모델링에 저를 비롯해 백인백색의 저마다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사용해 하나님께서 솜씨를 발휘하실테니 성도님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왜 하지?

이번 교육관 리모델링의 건축개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교육관은 지은 지 30여년이 넘는 건물이다 보니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교회 의 꿈나무들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긍휼한 마음이 교육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서 주로 어떤 공사들이 진행될 것인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 사용연한이 지난 냉난방기와 설비 및 전기배선들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여 성능과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 곳곳이 누수로 인한 피해가 생기고 있어 교육관과 본관 옥상전체와 누수부위 집중방수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둘째, 기존에 3층까지만 운행되던 구형 엘리베이터를 교육관 6층까지 연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기기와 시스템을 교체하게 됩니다. 에어컨이 가동되고 밝을 내다 볼 수 있는 전망형 엘리베이터라 밝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낡은 실내마감재들을 모두 철거하고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는 인테리어디자인과 가구들로 채워진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교회공동체가 교인들만의 울타리가 아닌, 지역사회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형태의 건축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1층 북카페에선 음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4층에 생기게 될 키즈존과 연계 하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을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로 끌어들이고, 카페 안의 소그룹 공간에서는 예약을 통해 학생들의 스터디나, 주민들의 모임 또는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공간은 주일에 아브라함과 한나회의 모임 장소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카페 내부에서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남녀화장실도 하나씩 만들 것입니다.

2층 식당도 주방의 낡은 취사환경들을 개선하고, 홀 역시 식욕이 절로 나는 맛깔스런 인테리어를 구현하여, 앞으로는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격조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층 키즈존은 미취학 어린이들의 전용공간으로, 유아예배실과 대형놀이공간으로 나뉘어져 어린이들이 깜빡 넘어갈 만큼 재미있는 놀이시설이 가득 들어찰 것입니다. 이 공간 역시 주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지역사회에 개방되어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입니다.

5층 초등부는 1,2부로 나뉘어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칼라와 재미있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된, 훌륭한 교육환경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6층 중등부는 넓은 예배공간과 여러 개의 성경공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춘기의 예민한 감각과 질풍노도와 같은 활동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제 끝나지?

철거부터 시작하여 여러 공정들로 나누어 진행될 본 공사는, 8월1일 착수하여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 중 주중에는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로뎀 출입구, 후문(로고스웨이) 출입을 통제합니다. 로뎀 앞 주차장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교육관의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 모든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5억 원 정도 들 것입니다. 이 예산 내에서 인테리어공사와 아울러 음향 및 영상 시설들이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며, 낡은 가구와 집기들도 새것으로 교체될 계획입니다.

우린 무얼 하지?

저는 한 달 남짓 공사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관찰하던 중에, 영암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공들여 이웃들을 섬겨왔는지를 목도하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 이십 년째, 화요형제라는 이름의 가난한 이웃들을 매주 교회로 초대해 영과 육의 양식을 채워 주신 행적은, 아무리 하나님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는 겸손으로 가려도 칭송받아 마땅한 사역임에 틀림없습니다.

말이 충감독이지, 저는 이번 일에 참여하시는 천명의 성도님들과 똑같이 천분의 일을 나눠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달란트대로 저마다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물질로, 또 어떤 이는



자원봉사로...

교육관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
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다시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새로운 교우들
과 젊은이들로 이 새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자 주)

영암교회 교육관의 건축 역사:

1979년 11월11일에 본당 새 성전을 봉헌한 이후 우리 교회는 계속적인 교인수의 증
가와 교회 교육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교육관 건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오
던 중 1983년 7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 교우들의 정성어린 헌금에 의하여 교
육관 대지 매입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온 교우들이 향후 2년간 분납할 예정으로
건축 헌금을 작성하기로 하고 헌금을 하니 공사비 5억2500만원 중 4억480여만원
이란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985년 4월26일 교육관 기공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약 1년 8 개월간의 공사 끝에 대지 247평 위에 지하2층, 지상 4층 (연
건평 728평)의 예쁜 교육관이 완공되어 1987년 1월4일 교육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알찬 교회 교육이 전개 됐다.) Y

(이순길 장로; 영암지 제 52호 40주년 기념호(1994.11.13) pp42~43 발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권태순
(한나회 의정부)



김광화
(7여 보문2)



김기순
(아브라함 보문1)



김도연
(4여 제기종로)



김두나
(7여 다락방3)



김봉식
(여호수아 안암7)



김신옥
(7여 다락방3)



김지환
(청년 하늘)



김향량
(6여 관악)



마순희
(5여 안암3)



박진호
(여호수아 보문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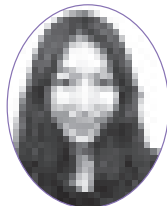
배재진
(2남 정릉1)



손일순
(에스더 안암3)



송덕순
(6여 안암6)



신영민
(청년 하늘)



이귀례
(1여 보문1)



이 애 숙
(1여 보문6)



이 옥 자
(에스더 동소문)



이 용 권
(4남 안암6)



이 재 옥
(유니게 안암1)



이 호 성
(6남 다락방1)



장 덕 순
(3여 안암5)



정 다 희
(고등부 안암3)



정 소 희
(청년 푸른)



조 대 희
(4남 안암6)



조 승 환
(여호수아 안암3)



조 혜 선
(6여 보문4)



최 고 야
(7여 안암3)



최 순 자
(한나회 안암5)



한 태 연
(여호수아 보문8)

유아세례식 5월6일(주) 3부 예배

- 유아세례자: 명시안, 이서원

영유아축복기도 5월6일(주) 2·3부 예배

모든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5월13일(주) 2·3부 예배

어버이주일 꽃 달아드리기 · 선물 증정 5월13일(주)

자립화대상교회 방문 5월18일(금)

- 영남권 3개 교회(영덕 상원교회, 예천 백송교회, 예천 성평교회)

QT세미나 5월23일, 30일(수)

- 강사: 박동진목사(성서유니온)

어린이해피파티 5월27일(주) 놀이마당, 먹거리마당, 버블쇼

평화나눔세미나 (주관: 월드비전) 6월14일(목) 영암교회

- 주제: 한반도 화해와 평화, 그리고 제자의 삶

아동부연합회 어린이대회 시상 6월17일(주) 찬양예배 시

- 글쓰기: 윤성민(초등2부) 노회대회 은상
- 영어성경암송: 최상준(초등2부) 노회대회 금상, 시대회 은상, 전국대회 대상
- 그리기: 김도희(초등1부) 노회대회 장려상
최상은(초등1부) 노회대회 동상, 시대회 은상, 전국대회 은상

새생명잔치를 위한 특별금요기도회 5월25일~6월8일(금)

새생명잔치 6월10일(주) 1~3부예배 및 찬양예배

- 강사: 개구우먼 조혜련집사(수서교회)

서울북교회 남선교회연합회 순회헌신예배 6월17일(주) 찬양예배 시

- 강사: 마요한목사(새희망나루교회)

6·25 기념주일 6월24일(주)

- 참전 국가유공자: 김득수, 김진곤, 김 척, 서문갑, 석문원, 유경희, 윤석봉, 장인규, 조인배, 조종익, 조태환, 최문환, 한기문, 홍병훈(14명)

교사주일 근속교사 표창 7월1일(주) 찬양예배

- 유아부: 심미숙(15년), 강진희(15년), 오세경(20년)
- 유치부: 김성은(10년), 김주선(10년)
- 초등2부: 전동진(10년), 윤은경(35년)
- 중등부: 하은희(25년), 안정원(40년)

교육부 및 청년공동체 여름사역/해외선교훈련

- 유아부: 7월7(토)~8일(주), 영암교회, 남양주 어린이비전센터
- 유치부: 7월21(토)~22일(주) 영암교회, 김포 태산가족공원
- 초등1부: 7월14(토)~15일(주) 영암교회, 강화도 자연 체험 농장
- 초등2부: 7월20(금)~22일(주) 영암교회
- 중등부: 7월29(주)~8월1일(수) 여주 품실채마을
- 고등부: 7월27(금)~29일(주) 여주 품실채마을

청년공동체 8월15(수)~17일(금) 안성너리굴문화원

중고등부 해외선교훈련 8월4(토)~12일(주)

캄보디아(김지영/양순식/신효헌선교사)

청년공동체 해외선교훈련 7월5(목)~15일(주) 케냐(이성호선교사)

임직식 7월22일(주) 찬양예배시, 장영배 안수집사

교육관 리모델링에 따른 주일 예배시간 조정 8월5일(주)부터 시행

- 1부: 오전7시 2부: 오전9시 3부: 오전11시
- 공사 기간 동안 찬양예배는 “살으로의 예배”로 드립니다

예닮동산 92기 주바라기 8월6~9일(월-목), 흥익교회

우신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8월19일(주) 3부예배

- 고등학생: 배진형, 송대범, 유민아, 강성빈, 박성빈, 박은서, 권동일, 정재윤, 오경철(대광고), 윤준서(용문고)
- 대 학 생: 김승희, 김영인, 안홍진, 유소영, 박인도, 김별, 장예진, 최성호, 표희주, 이기혁(목양교회)

부목사 부임 권세진목사(4교구, 교육위원회)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